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혁신생태계 조성

- 한국뉴욕주립대 등 5개 외국대학, 글로벌 연구개발 혁신 거점으로 도약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6. 7. 30.(목) 11시 서울 엘타워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산학협력 활성화 간담회 및 'IGC 네비게이터 데이 2026'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GC 입주 5개 외국대학 산학협력단, IGC 운영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학연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인천글로벌캠퍼스(IGC)는 동북아 교육허브를 목표로 '09년부터 인천 송도에 조성된 외국대학 공동캠퍼스로, 현재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및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 등 5개 외국대학이 입주해있다.

산업부는 IGC를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20. 9월 외국대학도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힘입어, '21. 12월 IGC 소재 5개 외국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었다.

오늘 행사는 IGC 외국대학 산학협력단의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대학의 노하우를 통해 양성된 인재와 학문적 성취를 한국 산업과 연계하고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이경전 경희대 교수의 'AI 에이전트 시대, 연구를 가치로 바꾸는 법' 기조연설과, 한국 정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 소개, IGC 대학 간의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과 국내 기업 간의 기술 및 인력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국내 첫 외국대학 공동캠퍼스로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혁신의 중심으로서, 세계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서비스투자지원팀	책임자	팀 장	임용기 (044-203-4620)
		담당자	사무관	박윤주 (044-203-4622)

